

주님 세례 축일

제1독서 : 이사 42, 1-4, 6-7

제2독서 : 사도 10, 34-38

복 음 : 마태 3, 13-17

이주일의 화답송

◎ 주님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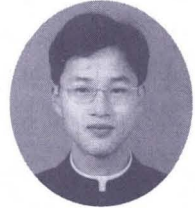
당신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리라.

# 순정이



## “사랑합시다”



김형수 신부/덕진 성당 보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다른 이들을 딛고 올라서려 합니다. 높은 자리가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싫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낮은 곳으로 내려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이런 저런 방법을 써보시더니, 이제는 ‘눈높이 교육’을 하시려고 마음먹으셨나 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황송한 일인데, 사람에게 세례까지 받겠다고 자청하고 나서십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기로 마음먹으신 듯 합니다.

그분의 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 더 잘 보입니다. 죄인들과 어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보다 더 높은 자리는 없습니다. 아마 사람이 하느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면,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암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이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수의 몸으로 사형을 당하시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실을 기

념하는 날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외쳤던 말이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기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 모두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을 사랑하시기에 하느님의 뜻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고통과 치욕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낮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여야 합니다. 사실 사랑이야말로 구원의 지름길이고, 참된 행복을 얻는 열쇠입니다.

가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합시다’를 계속해서 외치지만, 빈강통처럼 소리만 요란하고, 속은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 사랑해야 합니다. 입이나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 명 >

# 아버지 하느님께

정 인 섭(안드레아)

아버지 하느님!

제 육신의 아버지는 여든 다섯해를 살고 삼년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년이면 아직 어찌면 육탈이 안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백년 된 미이라를 봤을 때보다 염을 할때 본 냉동된 아버지 몸이 더 죽은 몸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제게는 아버지가 돌이면서 하나뿐이란 것을 알겠습니다. 셋이면서 한 분인 하느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돌이고 또 하나인 아버지는 아주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아버지가 죽었듯이 앞으로 죽게 되리라는 아주 분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저를 만드신 분은 아버지 하느님이시지만 몸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삼년전에 돌아간 제 생부임을 저는 잘 압니다. 그 아버지는 그리 썩 훌륭한 아버지는 못 되었습니다. 여덟을 낳아놓고 여섯을 키웠다고 하지만 실은 낳기만 했을 뿐 밥 먹이고 교육시킨 일은 그 아버지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종까지 반년간 자리에 누워서 결국은 엉덩이뼈 부분에 욕창까지 생겨서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하면이 세상 삶이 기실 얼마나 헛된지 그리고 삶이란 아무리 닦고 쓸어봐도 그저 누추할 따름인지 그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 비슷한 모양새로 죽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는 도무지 못하겠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아버지!

저는 하느님을 닮아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제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모양을 그대로는 못 참고 보겠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느님 아버지처럼 완전하게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나왔고 지금 살아갑니다. 결국은 죽음이라는 종점을 어딘가에 놓아두고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부인 요셉성인을 떠올려 봅시다. 그분은 성서에 잠시 잠깐 나와 있을뿐입니다만

어찌 그리 완전한 사람인지요. 한 마디 말도 없이 맑은 마음씨만 내비친 채 사라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 세상에 있다가 갔으면 싶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의 세상은 진정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되찾아야만 하는 '돌아온 작은 아들탕자' 같은 시대인 듯합니다. 신앙을 잃고 사랑의 끈도 놓치고 희망의 불빛도 없는 듯하여 절망에 놓인 세상인 듯합니다. 돈이라는 음식을 먹으며 미움이라는 반찬에 분열이라는 물을 마시는 불쌍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로 언제까지 헤매다 안 되겠으니 아버지집으로 돌아가자고 하게 될까요.

지금보다 좀 더 배고파야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좀 더 추운 마음 허전한 가슴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일찌기 지금보다 배고픔을 모른 채 배불리 지낸 적이 없었고, 또 허전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낸 적이 없었으니 아직 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필요할 때주시고 먹이시고 살리셨음을 아오니 이제는 다 아버지께 맡기겠나이다. 섭리대로 하시되 제 가난해지고자 하는 마음이나마 꺼지지 않게 도우소서.

이 세상에 가득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리 삶의 시작보다 먼저 계시고 죽은 뒤에도 계시는 아버지 하느님!

목숨을 쥐고 계시는 아버지 하느님!

## 숲정이 산책



## 2천년 대희년을 향한 새날 새삶운동

교회는 지난 2년동안 '성자의 해'와 '성령의 해'를 지내며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대희년 준비 마지막 해인 '성부의 해'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새날, 새삶운동을 시작합니다.

새날 새삶운동은 '나부터 새롭게' '참된 가정이루기' '좋은 이웃 되어주기' '함께가요, 우리'라는 네부분으로 나뉘어 전개됩니다. 이제 그 첫번째 단계로 1월부터 3월까지 '나부터 새롭게' 운동을 시작합니다. 교구에서 제시해드리는 실천표를 따라 구체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 나부터 새롭게

1.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기 :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주님의 뜻에 맞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익히기 : 인간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모른다면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알기 위해 성서, 교리서, 각종 교회문헌, 성인전 등을 스스로 찾아 읽고 연구합니다.
3. 제자리 찾기 : 희년의 본래 의미는 역시 '잃었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양심, 잃어버린 전통, 잃어버린 가치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입장 바꾸어 생각하기 : 역지사지(易地思之),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제 1 단계 실천표

월	전례주간	실천사항	선교
1월	주님 세례 축일	교구장 사목교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9쪽~22쪽 읽기, 세례 혹은 첫 영성체 때의 감격을 회상하면서 그 때의 결심을 다시 생각해 보기	선교의 첫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선택하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음을 깨닫고 믿읍시다.
	연중 제2주일	기도서 98쪽 '그리스도교 일치에 관한 기도' 하기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준 분을 위하여 묵주기도하기	
	연중 제3주일	사목교서 부록 "나부터 새롭게" 23쪽~27쪽 읽기, 집주변 청소하기	
	연중 제4주일	사목교서 부록 "나부터 새롭게" 39쪽~40쪽 읽기, 가족과 함께 소외된 이웃 방문하여 봉사하기.	
	연중 제5주일	"성부의 해" 기도 바치기, 과소비 줄이기	
2월	연중 제6주일	재의 수요일 전례에 참석하기, 사목교서 부록 「2000년 대희년을 향하여」 48쪽~54쪽 읽기	제1단계 금년 선교목표 설정하기 - 가족, 이웃(냉담자 포함) 중에서 올해 교회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을 1인 1명씩 정하기
	사순 제1주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 적어 보며 감사기도 드리기, 결식 아동, 혹은 실직자들을 위하여 사순 시기 동안 평소 즐겨하던 것 한 가지 절제하기	
	사순 제2주일	십자가의 길 기도 바치기, 공공질서 지키기	
3월	사순 제3주일	성요셉 호칭기도 바치기, 남을 더 낮게 여기기	제2단계 선정한 선교 대상자를 위해 특별한 지향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 바치기. - 묵주기도 - 화살기도
	사순 제4주일	야고보서 1, 1-5, 20절 읽기, 고해성사 보기, 화해해야 할 사람에게 편지 쓰기,	
	사순 제5주일	교회 공동체 일치를 위하여 성체 조배 하기, 남에게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하기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성삼일 전례 참석하기, 사순 시기 동안 절제한 것 봉헌하기	

#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해설

김선태 신부/가톨릭 신학원 교리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2년 10월 11일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승인·발행하였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교리서를 읽으려고 작성했던 교우들은 아마 처음부터 아연실색하리라. 그 어투가 딱딱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무척 까다롭기 때문이다. 도무지 알아듣기 힘들다. 이런 이유에서 숲정이는 교리서를 가까이 하려는 교우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가톨릭 교회」교리서의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소개하기로 하였다.

교리서를 발행한 근본취지는 성 대레오 교황의 한마디 말로 요약된다. “그리스도인이여, 그대의 품위를 깨달으십시오.” 이 교리서는 주로 교리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집필되었다. 즉 교리서의 대상은 우선 주교, 사제, 교리교사들이며, 그밖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열거되는 대상의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깨닫고, 또 그 품위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 순으로 그 대상이 열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깨닫고 지키려는 자는 그의 신분이 어떠한지 이 교리서를 등한시할 수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해 완전히 변화될 때 가능하다.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다. 완전한 변화이다. 때문에 부분적인 가르침을 깨닫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완전한 가르침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교리서의 목적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성전(聖傳)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가톨릭 교리와 윤리의 핵심적이고 기본적 내용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11항) 그러니까 교리서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가르침 전체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혹은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런 대답의 이면에는 근세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만성병으로 널리 퍼져있는 소위 ‘도덕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즉 그리스도교를 도덕이나 윤리로 축소시키려는 만성병이다.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선 사업에 종사하는 수도자만이 쓸모가 있다고 그리스도교를 비난하는 것도 이 만성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단지 도덕주의나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교리서의 구성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교리서는 총 네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신앙 고백, 2. 신앙의 성사들, 3. 신앙 생활, 4. 신앙 생활의 기도, 여기에서 먼저 교리서의 구성 순서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리서는 신경-성사-계명-기도의 순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계명-신경-기도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루터의 교리서나 신경-계명-성사의 순서로 구성된 이전의 많은 가톨릭 교리서와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를테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근세이후부터 계명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그리스교를 단지 윤리적 가르침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을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교리서는 신경과 성사를 강조하여 앞부분에서 다룬 다음 나중에 계명과 기도를 다룬다. 교리서의 이런 의도는 각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교리서는 신경에 39%, 성사에 23%, 계명에 27%, 그리고 기도에 11%를 할애하고 있다. 즉 삼위이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신비(신경과 성사)가 62%, 즉 2/3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계명과 기도는 1/3을 차지한다. 이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삼위이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신비가 고백(신경)되고 찬미(성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인간이 해야 할 일(계명과 기도)은 언제나 하느님의 크신 업적(신경과 성사)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교리서는 이렇게 하느님과 그분의 업적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도덕 혹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계시 종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셈이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단지 도덕이나 윤리규범 준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삼위의 하느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먼저 삼위의 하느님에게서 자신의 품위를 깊이 깨닫고, 깨달은 그 품위를 하느님께 계명과 기도로 응답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일 관 광**  
 신 혼 여 행 전 문

금 강 산 관 광  
 관 광 버 스 대 절  
 조 선 (안 토 니 오)  
 ☎ (0652) 288-6666

토 탈 패 션  
**I M A +**  
 영 개 주 일, 보 세 의 류 전 문 패 션 볼

김 문 식 (베 드 로)  
 심 점 순 (데 레 사)  
 객 사 뒀 K.F.C 앞  
 ☎ (0652) 231-7853

원 아 모 집  
**이 사 몬 테 소 리 놀 이 방**  
 대 상 연 령 : 0세 ~ 4세 까 지  
 반 일 제, 종 일 제, 운 영  
 몬 테 소 리 교 육 · 차 량 운 행 함  
 원 장 : 노 서 운 (아 스 타 리 아)  
 전 성 심 유 치 원 교 사  
 나 운 동 영 빈 예 식 장 뒤  
 상 담 전 화 : (0654) 463-4906

고 교 학 습 지 : CASE, 중 앙 완 전 학 습  
 초, 중 등 학 습 지 : 핫 스테 디

**군 산 동 아 서 적**  
 두 산 동 아, 대 교 (눈 높 이) 총 판  
 김 인 곤 · 서 현 정 (세 실 리 아)  
 학 습 지 상 담 ☎ (0654) 445-3222

1999년 성부의 해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대희년 준비의 마지막 셋째 해인 성부의 해 목표는 신앙인들의 시야를 넓혀, 그들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눈으로 사물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파견을 받으셨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요한 16, 28 참조).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 17, 3).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집을 향한 큰 순례 여정"과 같다. 피조물인 모든 인간, 특별히 '방탕한 아들' (루가 15,11-32)에 대한 아버지의 조건없는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발견한다. 이 순례는 각개인의 마음 안에서 시작되고, 신앙 공동체로 확장되며, 마침내 전인류에게 미친다(『제삼천년기』, 49항 참조).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하나의 순례이며, 우리의 매일은 하느님과 이루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일치를 향하여,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걸으라는 부르심이며 기회이다. 우리의 지상생활 그 끝을 미리 내다보며 하느님께 가는 우리의 이 여정에서, "멀리 계신 하느님"께서는 그 길의 모든 구비마다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이 되신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믿음과 눈과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

예수님 탄생 약 2000년 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디로 가야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들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남으로써 어떻게 믿음 안에서 순례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지 보여주었다.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바다에 발을 들여 놓아야 했으며, 40여년 동안 사막을 헤매야 했다. 그러나 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그들은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을 만났다. 마리아와 요셉 또한 아기를 낳기 위해 겨우 마구간을 찾아내야 하는 힘겨운 순례 여정을 믿음으로 받아 안았다. 동방박사들의 믿음과 희망은 베들레헴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기까지 그 모든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였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이 성부의 해에, 우리도 그 동안의 우리 자신의 순례 여정에 대해 믿음으로 묵상해 보아야 하겠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셨고, 어둡고 힘든 시간들 안에서는 어떻게 당신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충만을 향하여 우리를 이끄셨던 대단하신 하느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좋은신 아버지, 저희가 회년을 지내게 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은총의 때인 이 회년에 저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 아버지께서는 넘치는 사랑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녀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맞아들이시어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베풀어주시나이다" (『성부의 해 기도』 중에서).

기쁨과 은총의 대희년 2000년 대희년까지 11개월 15일 남았습니다.

요심이 (1327) 김병오

529호실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니?



중병에 걸린 환자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금고를 던것과 같지!



**우편으로 하는 성서공부**  
 시청각 통신성서 신입생 모집  
 친구와 성서입문(2년) ① 구비서류 : 입학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증명사진 2매 ② 원서교부 및 접수 : 12월 ~1월 20일 ③ 원서대금 : 5,000원 ④ 교부처 : 바오로딸 서원, 교육부 ⑤ 문의 : (02) 987-4004  
 (0652)252-3398, P/C통신-천리안 ID : UUS, 하이텔ID : tecla

**전주 금암성당에서 사무장님을 모집니다.**  
 □ 대상 : 믿음과 봉사정신이 강한 분  
 □ 접수기간 : 1월 24일(일) 오후 7시  
 □ 접수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세례증명서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1569-2  
 ☎ (0652) 251-1911

서도프라자 확장이전  
**코아삼익피아노**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면세)  
 디지털피아노, 키보드  
 일반악기 도소매  
 효자동 서도프라자 2층  
 양 노 섭 (하삼 바오로)  
 ☎ 225-5252. Fax 223-5332

**신약농장 · 토종마을 인산가**  
 ◇ 유허오리, 오골계, 토종닭, 토종돼지, 흑염소, 울나무, 홍화씨, 서목대, 유허마을, 인산죽염, 유허오리알, 유허오리엑기스  
 ◇ 월간 신도블이 건강, 각종 토종약재 및 토종 농특산물  
 농장 ☎ (0677) 562-1308  
 휴대폰 011-681-4985  
 판매장 (0677) 563-3385

**김제원 광한의원**  
 한의학박사 이순호(루치야노)  
 정연숙(루치야)  
 김제시 요촌동 김제초등학교 앞  
 ☎ (0658) 547-3260  
 546-3200

**함경아 피아노 조율 전문센터**  
 구입에서 조율, 운반까지  
 섬세하고 맑고 아름다운 소리로  
 보답하겠습니다.  
 함 경 아(요안나)/이 종 균(요한)  
 아중 대우APT 109동 306호  
 ☎ 사) (0652)288-0422  
 자) (0652)243-0422  
 휴) 011-681-0422

마음이 머무는 곳 >

# 가톨릭 예술의 부활을 꿈꾸며

김 대 원 프란치스코/숲정이 성당

예향의 도시, 옛 문화의 본고장, 온고을 전주를 지칭하는 다정스런 이름이다. 등따습고 배불러 예술이 꽃필 수밖에 없었던 축복의 땅. 동적임보다는 정적인 맛이 더 깊이 배어 있는 이곳에 자랑스럽게 방인교구가 탄생되었고, 우리 것에 대한, 그리고 예술에 대한 감각도 남다른 곳이다. 철철이 연주회다, 전시회다, 발표회다 일년 열 두 달 불거리, 들을 거리가 풍성하다

종교계 쪽에서도 예술활동을 통해 나름대로 선교 활동들이 분주한데, 우리 가톨릭쪽 예술 활동의 면면은 어떠한가? 가톨릭 문우회가 매년 동인지 '빛무리'를 펴내고 있고 얼마전 사진가회의 불우이웃돕기 사진전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활동이 없는 실정이며, 이마저 찾는 이의 발걸음이 없어 IMF형국을 재현했었다.

음악쪽을 보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연주회의 경우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은 대개가 미사곡이나 그와 유사한 우리의 전통 가톨릭 음악들이 연주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정작 가톨릭내에는 이런 주옥같은 음악들을 들려줄 연주 단체도 없는 실정이다. 신자들 중에 많은 음악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교구에서 활동하는 예술 단체로는 가톨릭합창단, 국악 실내악단, 사진가회, 문우회 등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타 교구를 보면 미술인 협회, 국악인 협회, 음악인 협회, 연극인회, 공예인회 등 각종 문화 예술 분야에서 모임들을 가지며 왕성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물론 교구에서 갖는 애정과 관심도 있겠지만,

예인(藝人)들의 자발적인 결속과 참여속에 이루어지는게 보통이다.

예술은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게 하고 인간의 심성을 곱고 바르게 만들고 악한 마음도 교정하여 하느님 쪽으로 회귀시키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예향의 고장이라 지칭하는 이곳에서 이러한 예술 활동들이 활성화되어 꽃피워지고 또한 이 활동들을 통해 선교의 한 몫을 담당해 낸다면 이야말로 금상첨화(錦上添花)라 아니할 수 없다. 특별히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자생적인 움직임을 가지며, 2000년 대희년을 향해 분주히 움직이는 교회 안에서 풍성한 활동들을 전개하여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재능을 통해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찬미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위안과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2000년 대희년을 눈앞에 두고 각자에게 부여받은 몫을 통해 나름대로의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함께 가는 길에, 또 이웃을 위하는 일에 나부터 새롭게 되어 앞장서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난 60주년 행사 때 공연되었던 '님이시여 사랑이시여'의 공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내 사랑 내 그리움이여,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천상에서 다시 만날..."



**'99청년겨울피정(3기배동교육)**  
 99년 1월22일(금)~1월26일(월) 3박4일  
 용문 가톨릭청소년 수련장. 복음적 인생관과 소명의식을 위한 '자아발견', '기초 신학'(창조론,그리스도론,성사론), '좌선명상수련', '기도 생활틀짜기', 산행등  
 대 상 : 고3 대학생, 미혼 직장 청년 신앙인  
 참가비 : 서울, 인천, 수원, 춘천교구 - 75,000원  
 그 외 교구 - 65,000원 문의및 접수 : 예수살이 공동체 T. 02-3487-4825/F. 02-3487-4826

**동보한의원 동부약국**  
 최정단 의료시설 및 주차장 완비  
 원장 김 경 환(파비아노)  
 약사 범 순 복(안 나)  
 익산시 영등동 성당 옆  
 ☎ 한의원 (0653) 852-4666  
 약 국 (0653) 841-7217

**원 아 모 집**  
 대상 : 1세부터~취학전자녀  
 특징 : ① 몬테소리교육 ② 종일 반 운영 ③ 저소득층 자녀 혜택 ④ 차량운행  
 접수 : 팔복 성모 어린이집  
 전화 : (0652) 212-1618

**노송신협 슈퍼마켓**  
 부식납품전문  
 · 풍년제과 직영점  
 · 목우촌 정육, 행정판장 (조합원은 장려금을 드립니다.)  
 이 정 호(마르크)  
 안 병 목(마르타)  
 전고정문앞 노송신협 2층  
 ☎ (0652) 231-5270

# 교 구 소 식

- ◆ 레지오 1단계 기사교육
  - 때 : 1월 11일(월)~13일(수)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 사회교정사목군산후원회월례미사
  - 때 : 1월 11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나운동 성당
- ◆ 사무장, 사무원 연수
  - 때 : 1월 12일(화)~13일(수)
  -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 ◆ M.E 7차 주말
  - 때 : 1월 15일(금)~17일(주일)
  - 장소 : 천호피정의 집  
(2월 ME 주말 신청 받습니다)
- ◆ 신학교 신입생 피정
  - 때 : 1월 15일(금)~17일(주일)
  - 장소 : 수류성당
- ◆ 중·고 전례부원 연수
  - 때 : 1월 16일(토)~17일(주일)
  -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 ◆ 신학교 신입생 부모피정
  - 때 : 1월 17일(주일)
  - 장소 : 수류성당
- ◆ 가톨릭 사진가회 모임
  - 때 : 1월 17일(주일), 오전 7시
  - 장소 : 가톨릭 센터

◆ 기억할 사제  
1월 15일, 임복만 신부 5주기

## 관해드립니다

예수수난, 그 여정의 인물들 1, 2  
김선태 옮김/각권 3,500원  
예수수난과 관계있는 주변인물들의 삶과 내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므로 오늘도 계속되는 예수수난의 의미를 돌아보며 우리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톨릭 사진가회는 지난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가톨릭 센터에서 불우이웃돕기 사진전시회를 열고 수익금 50만원을 교구 사회사목국에 전달하였다. 또한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초보자들에게는 무료로 사진강습을 해주고 있다. 문의 (0652) 285-0041

- ◆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에서는 우리 농촌 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우리농촌에서 생산된 쌀, 콩, 잡곡과 순 우리콩메주를 생산 공급합니다.(한말 40,000원) 상담 및 주문 :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 (0652) 285-4205
- ◆ 전주 가톨릭 신학원 교리부의 원서 마감일은 1월 21일입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십시오. 문의 전화 (0652) 284-6227 (직통) 285-0041 FAX 284-6228

### 성소모임

수 도 회	시 간	장 소	문 의
동정성모회(전주, 이리)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금암동 성당수녀원	(0652) 253-0325
사랑의씨튼수녀회	매월 첫째주 토 오후 4시	동산동 성당수녀원	(0652) 212-3233
인보성체수도회	매월 넷째주 오후 2시	중노송동 보원	(0652) 284-3231
바로로딸수도회	매월 첫째주 오후 2시	바로로딸 서원	(0652) 252-3398
살레시오여자수도회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정읍연지동 성당수녀원	(0652) 533-2578
성심전교수녀회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삼천동 성당수녀원	(0652) 226-3487
부산성베네딕도수녀회	매월 둘째주 오후 2시	호성동 성당수녀원	(0652) 244-0094
샬트르성바로로수도회	매월 둘째주 오후 2시	이리창인동 성당수녀원	(0652) 858-4724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서학동 성당수녀원	(0652) 284-2276

**죽림리조트 유행온천**  
당뇨, 피부병, 신경통 위장에 특효  
사우나, 대중탕, 가족탕, 여관  
이 봉 근(바로로)  
국 장 호(요셉)  
☎ (0652) 232-8832  
(0652) 232-8757

**자동차 보험 전문회사**  
(주) 에이프러스윈 전주지점  
(총괄보험 법인대리점)  
사 용 인 모 집  
이 성 기(세베리노)  
정 성 욱(리드비나)  
☎ (0652) 241-1256(7)  
휴대폰 011-680-8929

**서울 가 정 의 원**  
치질 전문 치료  
입원하지 않고 수술 치료  
무통, 초음파, 레이저  
전문이: 이 상 재(베네딕도)  
전주 덕진광장 앞  
☎ (0652) 275-0550-1

**행복 웨딩 스튜디오**  
웨딩앨범 제작, 아기·가족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정 진 우(아모스)  
정 성 이(레 아)  
☎ (0654) 471-5557, 465-4996  
교우분들께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극동주유소 사거리 점인아트 맞은편

**영창피아노 전주중앙점**  
\* 장·단기 할부판매  
\* 중고보상 판매  
\* 조율 및 운반전문  
전 상 진(베드로)  
유 명 숙(요안나)  
☎ (0652) 252-0103-4  
284-6085/284-9989  
(구, 서중로터리 동원증권 맞은편)

**예 일 연 예 기 획  
예일아코디언교습소**  
연예행사 출장 반주  
아코디언, 기타, 만도린  
전자음향 개인지도  
☎ 221-5366  
(휴) 016-651-5233

**제일장문외과**  
(구. 제일학문외과)  
대장·항문 전문병원,  
(치질, 치루, 치열, 항문주위 농양, 변비),  
유방 클리닉  
의학박사 최 성 양(루가)  
전 문 의 안 해 선  
익산시청 ↔ 북부시장 사이  
☎ (0653) 858-7575, 7585

**동전주 주유소**  
(품질좋은 쌍용)  
성실, 신용으로 시내 전지역 신속배달  
소양, 진안 방면 초입  
(우아동 파출소 옆)  
황연옥(요셉) · 윤성자(수산나)  
☎ (0652)245-5123, 5134(오일상사)  
(휴) 016-606-5134

## ■ 남전주시구 본당소식 ■

**노송동** 주임신부 282-9663 사무실 2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F A X 282-9664 수녀원 282-9662 사목회장 박요안

1. ME 부부 대표: ① 한기성(레오), 황의숙(세실리아)  
\* 수고하셨습니다  
② 노광용(비오), 윤경자(베로니카)  
\* 수고하시겠습니다
2. 친목등반: 11일(월), 전 8시 30분, 참가비 - 1만원, 도시락 지참
3. 세실리아 성가 대원 모집: 성가 봉사 하실분을 모집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후에 성가 연습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4. 모임: ① 장우회, 대전화 - 오늘 교중미사 후  
② 부녀회 - 13일, 어머니미사 후  
③ 세실리아회 - 14일, 저녁미사 후  
④ 성우회 - 17일, 교중미사 후
5. 금주 전례: 해설 - 최광식, 독서 - 김지원, 조분님  
보편지향기도 - 정선엽, 이선화  
봉헌 - 최철영 부부
6. 차주 전례: 해설 - 이수원, 독서 - 김시영, 진경숙  
보편지향기도 - 변태공, 이영나  
봉헌 - 전도열 부부
7. 금주 청소: 인후 3, 4번  
8. 차주 청소: 인후 6, 7번

□ 지난해 봉헌금: 1,279,930원 □ 교무금: 857,000원

**복자** 주임신부 286-3453 사무실 286-3455 주임신부 김진룡  
F A X 288-3455 수녀원 286-3454 사목회장 신일훈

- ◎ 축하드립니다: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 - 17일(다움주) 교중미사 후
1. 중고 학생 전례부원 연수: 16일(토)~17일(일), 나바위
2. 사무장(원)연수: 12일(화)~13일(수), 나바위
3. 금주 모임: ① 요셉회, 울프레야 - 교중미사 후  
② 청년회 - 저녁미사 후
4. 주간 모임: ① 성모회 - 14일(목) 전 10시  
② 자모회 - 16일(목) 후 3시
5. 차주 모임: 빠스카회, 해설자 모임 - 교중미사 후
6. 전례 안내:  
① 금주 해설 - 구분장, 독서 - 박노환 부부, 봉헌 - 신일 3번  
② 차주 해설 - 정승훈, 독서 - 임병련 부부, 봉헌 - 고사반
7. 성당 청소: 16일(토), 천사의 모후 Pr., 다윗의 탑 Pr.
8. 신축헌금: 박상규(분도) 50만, 복권행사 수익금 55만  
\* 신립총액 - 204,916,050원, 입금누계 - 178,540,774원
9. 자모회 임원개편: 회장 - 조정임(에스텔)  
부회장 - 강신희(안젤라), 회계 - 최금재(실비아)  
서기 - 한연희(기모니아)
10. 청년회 임원개편: 회장 - 서인원(대건 안드레아)  
부회장 - 김현(필립보)

□ 지난해 봉헌금: 777,600원 □ 교무금: 3,717,000원

**상관** 주임신부 285-6654 사무실 285-6652 주임신부 김윤섭  
F A X 285-6652 수녀원 285-6653 사목회장 최경림

- ◎ 98년 교무금, 신축헌금을 완납바랍니다.  
◎ 99년도 교무금: 십일조 정식으로 신청바랍니다.  
◎ 99년도는 주일미사에 빠지지 않는 신앙공동체를 만듭시다.
1. 금일 모임: ① 천주의 모후 Cu - 공식미사 후  
② 남성 160차 꾸르실리스타 정덕현(바로로)환영식 - 오후 7시
2. 금주 모임: ① ME 모임 - 12일(화) 오후 8시  
② 성문호회 - 14일(목) 오후 7시
3. 14일(목) 새벽, 15일(금): 저녁미사 없음
4. ME 교육: 15일(금)~17일(일)  
최병섭(프란치스코), 손논산(데레사)부부  
김석환(윤호요셉), 강금순(효주 아네스)부부  
박종명(미카엘), 홍옥길(미카엘라)부부
5. 감사합니다(신축): 타본당 김순부(로사) 5만원  
수녀원 세탁기, 탈수기 기증 - 봉사부
6. 성전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소계 - 2,165단 총계 - 995,175단
7. 성전신축봉헌금납부(단위: 만원): 신립총액 - 905,045,650원  
이재윤 400, 최병남 100, 류덕진 100, 최세림 105  
강신옥 50, 박준상 10, 박정일 10, 임현자 10, 김옥순 5  
조정기 5, 하정이 5, 순결하신 어머니 4, 이귀용 4, 강문관 3  
동정의 모친 2, 윤문자 1  
소계 - 914,000원 총계 - 651,989,747원

□ 지난해 봉헌금: 2,104,600원 □ 교무금: 9,816,000원

**서학동** 주임신부 284-8307 사무실 286-4929 주임신부 문규현  
F A X 232-9029 수녀원 284-2276 사목회장 김영근

- ◎ 금주의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홀연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 오시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오 3,16-17)
- ◎ 쉬고 있는 형제와 새신자들을 위한 묵주기도 운동:  
주계 - 1,455단 누계 - 167,255단
- ◎ 함께 나누시다: 실직자들이 2차헌금을 매주 실시합니다. 줌도리 운동으로 성체성사의 나눔을 생활화 합니다.
1. 선택교육: 우리의 진정적이며 개인적인 인간 관계에서 자신의 소속감을 창조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 안에 있음을 인식시켜주는 인성개발 교육입니다.  
① 대상 - 본당청년 전원 ② 일시 - 2월 6일~7일  
③ 장소 - 서학동성당(장소변경가능) ④ 접수 - 사무실  
\*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2. 99년도 교무금 신립: 사무실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 98년도 교무금 미납 가정에서는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서교실: 매주 금요일 후 6시 30분, 강당
4. 전입을 환영합니다: 25반 - 이용희(다미아노), 김은정(프란체스카)  
대승프른맨션A 101동 609호, T. 287-9015
5. 금주 모임: ① 사목회 - 오늘 공식미사 후, 강당  
② 프란치스코삼사회 - 오늘 후 2시, 강당  
③ 성심회 - 13일(수) 전 10시 30분, 1회합실  
④ 울프레야 - 14일(목) 후 7시 30분, 1회합실
6. 차주 모임: 성모회 - 17일(일) 공식미사 후, 유아방
7. 봉헌안내: 금주 - 17만, 차주 - 18만

**전동** 주임신부 281-0098 사무실 284-3222 주임신부 김종필  
보좌신부 282-7245 수녀원 282-9234 보좌신부 이원철  
F A X 282-6232 유치원 284-8347 사목회장 유철종

- ◎ 1999년 교무금 신립: 화요일~금요일 후 7시, 일요일 - 공식미사 후
1. 금주 모임: ① 자모회 - 전 10시  
② 일치의 모후 꾸리아 - 후 2시  
③ 사목회 - 후 8시
2. 주간 모임: ① 나자렛회 - 12일(화) 전 11시  
② 예루살렘회 - 13일(수) 전 11시  
③ 사베리오회 - 13일(수) 후 7시 30분  
④ 돈보스코회 - 13일(수) 후 7시 40분  
⑤ 구역(반)장 모임 - 14일(목) 전 11시
3. 중고 전례 부원 연수: 16일~17일, 나바위 피정의 집
4. 사목위원 및 제단체 임원 피정: 23일(토) 후 2시~후 6시  
전동성당 교육관
5. 99년도 가정 교리 첫 영성체 반을 모집합니다: 수녀원 T.282-9234  
대상 - 유아세례 후 첫 영성체를 하지 않은 3, 4, 5학년 어린이
6. 본당 청소: 16일(토) 후 4시 - 황금의 궁전 Pr.  
시은의 딸 Pr., 성모성당 Pr.
7. 차주 모임: 바녀의 성모 꾸리아 - 후 2시

□ 지난해 봉헌금: 2,662,660원 □ 교무금: 2,460,000원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사무실 232-5005 주임신부 이상섭  
보좌신부 232-5002 수녀원 232-5004 보좌신부 이원철  
F A X 232-5003 사목회장 황의욱

- ◎ 98년 교무금, 신축헌금을 완납바랍니다.  
◎ 99년도 교무금: 십일조 정식으로 신청바랍니다.  
◎ 99년도는 주일미사에 빠지지 않는 신앙공동체를 만듭시다.
1. 금일 모임: ① 천주의 모후 Cu - 공식미사 후  
② 남성 160차 꾸르실리스타 정덕현(바로로)환영식 - 오후 7시
2. 금주 모임: ① ME 모임 - 12일(화) 오후 8시  
② 성문호회 - 14일(목) 오후 7시
3. 14일(목) 새벽, 15일(금): 저녁미사 없음
4. ME 교육: 15일(금)~17일(일)  
최병섭(프란치스코), 손논산(데레사)부부  
김석환(윤호요셉), 강금순(효주 아네스)부부  
박종명(미카엘), 홍옥길(미카엘라)부부
5. 감사합니다(신축): 타본당 김순부(로사) 5만원  
수녀원 세탁기, 탈수기 기증 - 봉사부
6. 성전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소계 - 2,165단 총계 - 995,175단
7. 성전신축봉헌금납부(단위: 만원): 신립총액 - 905,045,650원  
이재윤 400, 최병남 100, 류덕진 100, 최세림 105  
강신옥 50, 박준상 10, 박정일 10, 임현자 10, 김옥순 5  
조정기 5, 하정이 5, 순결하신 어머니 4, 이귀용 4, 강문관 3  
동정의 모친 2, 윤문자 1  
소계 - 914,000원 총계 - 651,989,747원

□ 지난해 봉헌금: 2,104,600원 □ 교무금: 9,816,000원